

內容제자리... 의식변화 못따라

여성개발원 분석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갖가지 교육·직업교육·사회교육이 실용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여성사회교육 헛점 많다

교육들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과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 내용도 여성의식변화를 따르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이 전국 15세 이상 여성 2천2백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사회교육 요구분석」에 따르면 여성사회교육 내용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요령, 봉제이 미용기술, 전통적인 성별분업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어 여성의 자아실현과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 중 직업교육 기술교육 관련 직업교육과 전문직 사회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54.1%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64.8%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대 40대 10대 60대의 순이었다. 한편, 높은수록 참여율이 높았다. 종교별로는 천주교 개신교 신자가 타종교에 비해 참여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참여율이 높고 취업자 가운데서는 전문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 중 사자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사회교육 참여실태를 교육과 전문직으로 보면 여가, 교양과정의 75.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직업·기술교육과정(23.6%), 학원·인성교육과정(1.6%)의 순이다. 여가·교양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실내장식, 식단 마련, 자녀교양 등 가정생활 관련이 5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종교·교양·예절교육 등 기초교양(23.7%), 전강·보건교육(20.9%), 정치·지역사회봉사·민중참여(11.9%), 취미·여가(9.3%) 등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요령」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방법」 「가계를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지혜」 등이다. 여성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내용이 여성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과 성장을 꾀하도록 이끌기보다는 가족과 가정만을 위한 「절묘양치」 「로사의 심해」 「안주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연구팀이 지적했다. 이같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옳지 못한 삶이라고 말한 수는 없지만, 중년의 후의 많은 여성들이 「나는 무엇인가」라는 회의의 시달린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경향

「현모양처」 위주 자기계발 도움못줘



여성대상 사회교육이 봉제이 미용기술을 「전통적인 여성직종」에 치우쳐 여성실현을 돕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마귀 위한 여성개발과정의 교육과정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기술과정의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한 전체 8백33회의 과정 중 가장 참여율이 높은 내용은 봉제 양치(1백37회), 농사짓는 방법(1백31회), 속기 타자(81회), 미용기술(52회) 등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종으로 알려진 것은 과정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이 실제로 참여한 과정은 2천4백56건 중 직업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봉제 양치, 미용기술 못지 않게 수습장비문전(3백67회), 도소매업(1백20회), 도자기공예(1백12회) 판매를 위한 상품구매(1백55회) 전문기술직종(93회) 등 비여성적 분야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사회교육이 여성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인성교육과정에서는 대 학단계(41.8%), 교양단계(28%)의 교육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금까지의 교육내용이 알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개발원은 「현재의 사회교육이 성차별에 의한 여성의 활동을 감소하고 여성의 요구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여성이 여성으로서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서 또한 사회인으로 「능력을 갈수록 높여 사회교육의 내용 및 방법이 재검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順德기자>